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북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북을 펴내며

8년 전,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억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은 그냥 멍하였습니다.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시간은 정지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뭐지?”

생각도 멈추고 심장도 하얗게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가득한 고민을 되뇌는 시간은 지독히도 혼자인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웠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 후 성소수자들과 만나며 뼈 속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성소수자인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성소수자와 함께하기 위해 벽장문을 열고 나온 가족들이 모여 만든 모임입니다. 부모모임의 한 아버지는 “편견 없는 사회라면 이게 무슨 걱정이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소수자인 것이 걱정이 아니라, 성소수자인 자녀가 편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사회의 무지로 인하여 혐오와 차별 속에 고통받는 성소수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이 이 가이드북을 내는 것은 그런 현실을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제 인생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부모모임에 와서 보낸 시간 속에서 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8년 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행복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드북이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또 다른 부모님을 위한 작은 정보의 징검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 하늘 (성소수자 부모모임 대표)

우리 아이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래요. 이제 어찌죠?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는 죄책감, 자녀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슬픔, 자녀가 좀 더 일찍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경험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에 행복해 하거나, 무엇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 했는지 알았다는 것에 안심하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달았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자녀에게 대답하는 것,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배우는 것, 이런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것, 이러한 모든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 시기를 벗어나 자녀와 이전보다도 더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1. 당신의 자녀는 예전에 알던 자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뀐 것은 아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까지 자녀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았던 벽을 넘어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새롭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일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닫는 평균 나이는 13세이며,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깨닫는 평균 나이는 그보다 더 빠른 만 4-6세 정도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질병인가요?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는 생리학적,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연구들에 의해 더 이상 치유되어야 할 '질병'이 아닌 '성적 지향'으로 개념화 되었습니다.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포함하여 양성애, 무성애 등을 '정신적 장애'로 보는 것이 오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II)'에서 동성애를 공식 삭제하며 성적 지향이 정신 병리와 무관함을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며,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형태'임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을 포함한 117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세계정신의학회 역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질병 분류(ICD-10)'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성 주체성 장애'와 '성전환증'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권고되는 의료적 조치가 일반적인 정신질환처럼 약물이나 상담에 의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 등 성전환(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라는 점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치료 받아야 하는 정신과 질환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나요?

미국심리학회도 현재까지 효과가 입증된 동성애 '전환치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적 지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행위는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을 증가시켜 오히려 동성애자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모든 주요 의학회와 심리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에서 이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과학적인 믿음에 근거한 '전환치료' 시도가 그러한 행위를 당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은 세계 최대 탈동성애 운동(Ex-gay movement) 단체였지만, 지난 2013년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사과하는 글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인 알란 챔버스는 사과문에서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그 결과 성소수자들에게 도움보다는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 같은 폭력을 경험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도 암암리에 '전환치료'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동성애' 치료한다며 "귀신 들렸다" 무자비 폭행(한겨레, 2016.03.07)). 폭행은 물론 전기충격과 물고문 등 끔찍한 행태가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는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어졌습니다.

부모의 영향인가요?

성소수자는 모든 형태의 가족에서 나타납니다. 아주 종교적인 가족부터 신을 믿지 않는 가족까지, 보수적인 가족부터 진보적인 가족까지, 모든 인종과 모든 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족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권위적인 어머니를, 어떤 이들은 권위적인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어떤 성소수자들은 외동인 반면, 어떤 성소수자들은 막내이거나, 둘째이거나, 맏이입니다. 부모가 둘 다 있는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입양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요소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학술적 인정을 받은 어떤 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태어난 순서, 임신 중 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사실 성소수자인 것이 잘못도 아닙니다.

성소수자가 얼마나 되나요?

2011년 미국 윌리엄스 연구소의 갤럽조사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3.5%가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밝혔으며, 그중 동성애자의 비율은 1.7%, 양성애자는 1.8%, 트랜스젠더는 0.3%로 보고하였습니다. 3.5%라면 정말 적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30명이 있는 학교 교실마다 한 명씩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족, 친지 중에도 분명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이들이 선뜻 주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 가운데 커밍아웃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비율은 82%나 됩니다. 그 동안 몰랐을 뿐 성소수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에이즈를 걱정해야 하나요?

에이즈(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줄임말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인체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감염성 질환과 종양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HIV 바이러스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관계, 주사기 등으로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HIV 바이러스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하며,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한 기대수명을 가지며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HIV 감염인 중 많은 수가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며, 남성 동성애자가 HIV 감염에 취약한 집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동성애가 에이즈를 퍼트린다"고 말하는 것은 HIV 감염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 오히려 HIV/에이즈의 예방과 치료를 어렵게 만듭니다. 에이즈는 2030년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될 질병으로 인식되며, HIV 감염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에이즈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다른 질병들처럼 적절한 관리와 치료만 받으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HIV/에이즈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HIV 감염인들을 음지로 내몰아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죄악인가요?

성서는 특정한 문화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입니다. 성서는 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내려준 책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널리 인정받는 성서학자들도 성경에 써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관한 구절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비성서적”이라고 정죄하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서 구절들을 보면, 첫째, 그 어느 구절에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야 할 ‘예수’로부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둘째, 그 어느 구절에도 여성과 여성끼리의 관계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일부다처제와 노예제 또한 허용되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따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성서를 해석해서 오늘날 일부다처제와 노예제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성서 해석의 기준은 누군가를 증오하고 차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준 예수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핵심은 ‘어떻게 약자들과 함께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타인에게 혐오와 폭력을 행하는 행위는 민주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질문을 던져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가르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평생 동안 믿어온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신앙 속에서 더 큰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 저희 아들이 게이인 걸 알았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매일 성당에서 하느님께 바꿔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있는 존재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있는 존재를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양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시는 하느님, 당신은 제게 든든한 동아줄을 내려 주셨습니다.” - 게이 아들을 둔 어머니

자녀의 커밍아웃을 받은 부모의 반응 6단계

미국 필라델피아의 성소수자 가족들의 모임 '피플래그 필라델피아(PFLAG Philadelphia)'에서는 성소수자 자녀를 둔 여러 부모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자녀가 성소수자임을 알게 된 다수의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변화의 과정을 ①충격 ②부정 ③죄책감 ④감정표출 ⑤결단 ⑥용인의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충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 부모가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해당되며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녀가 낯설게 느껴지고,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확신이 깨집니다.

- 어떤 부모들은 오히려 안도합니다.

자녀가 오래 전부터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의 경우엔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어 안도하기도 합니다.

- 몇몇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단계: 부정(거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은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 사실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며 거부하기도 하고, 새겨 듣지 않거나 모른 척 무시하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기도 합니다.

- 부모들은 자녀가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치료”를 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대체로 동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인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부모들은 자녀를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정체체성을 받아들이거나 지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죄책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 “내가 뭘 잘못했지?”

유전적 원인이든 환경적 원인이든 부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끄러움, 우울감, 죄책감을 느끼지만 다른 누군가와 고민을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열중하기 때문에 자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죄책감의 원인은 부모가 여전히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과 본인의 양육 방식에서 아이가 성소수자가 된 '원인'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 단계들에서 자녀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후회가 죄책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애가 게이인 걸 알고 나서부터 작년 초까지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잠을 거의 못 자고 2, 3일에 한 번씩 울고. 밤에 자다가 깨면 ‘나 때문에 애가 힘들게 살겠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 게이 아들을 둔 어머니

4단계: 감정 표출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자책이 헛된 일이란 것이 분명해지면, 이 시점에서 온갖 종류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손자를 볼 수 없다니 정말 실망스럽구나”, “다른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너무 고통스럽구나. 모르는 게 나왔을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5단계: 결단

● 선택의 기로

감정의 상처가 아물면서, 잠시 뒤로 물러나 자기 앞에 놓인 선택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1) 지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어갑니다. 서로 더 솔직해지고 신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2) 여기까지만, 이제 그만

어떤 부모들은 그 문제에 더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입니다. 이를 꼭 부정적인 태도라고 볼 순 없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있고 그 한계를 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3) 끊임없는 불화

자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들은 계속해서 자녀의 모든 행동에 불만을 표출합니다. 귀가 시간, 말투, 만나는 친구들, 진로 선택, 학교 성적 등 자녀의 모든 말과 행동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6단계: 참된 용인

● 어떤 부모들은 이 단계까지 도달합니다.

자녀를 변화 시키고 싶은지 물으면, 이 단계의 부모들은 "오히려 나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를 변화시켜서 내 아이가 냉대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들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의 일부인 자신들의 죄책감을 인정합니다. 억압에 맞서 주장하기 시작하며,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다른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성소수자의 가족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 중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77.4%, “자살을 시도해 봤다”는 응답자 비율은 47.4%에 이릅니다(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보고서, 2006).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은 성정체성 자체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차별 경험 때문에 저해된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지지를 받아야 할 가족들에게조차 거부 당하고 적대와 혐오감을 경험한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의 케이틀린 라이언 박사 팀의 연구에 의하면(Family Acceptance Project, 2009),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강한 거부를 당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8배 이상의 자살 시도와 6배에 달하는 심한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반면 포용적인 가족을 둔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적대적인 가족을 둔 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로서 이 과정이 많이 힘들더라도, 자녀에게 이 과정이 훨씬 더 힘든 과정이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자녀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부모의 사랑을 잃을까 걱정하고,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해왔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고, 대화하고,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는 두려움, 걱정, 분노 등 힘든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증오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성소수자에게 부모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좋아요!

- ▶ 자녀와 함께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 ▶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 ▶ 자녀의 성정체성을 지지하기
- ▶ 성정체성을 이유로 타인에게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 자녀를 옹호하기
- ▶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성소수자 자녀의 존중을 요구하기
- ▶ 신앙 공동체가 성소수자를 지지하도록 촉진하기
- ▶ 자녀가 성소수자 친구 혹은 연인을 소개할 때 반갑게 맞아주기
- ▶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믿기

이런 행동은 위험해요!

- ▶ 자녀의 성정체성을 이유로 때리거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
- ▶ 자녀를 가족으로부터 배제하거나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 ▶ 성소수자 친구들과 단절시키거나, 성소수자 관련 행사나 자료를 금지하는 것
 - ▶ 자녀가 성소수자 정체성 때문에 차별 받았을 때 자녀를 탓하는 것
 - ▶ 자녀를 더(혹은 덜) 남성적, 혹은 여성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
 - ▶ 자녀에게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벌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
 - ▶ 자녀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가족들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
- ▶ 자녀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Caitlin Ryan, Family Acceptance Project, 2009

성소수자 부모모임에 나와보세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부모님에게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하지만, 부모로서 아직 한국에서 자녀가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고, 같은 고민을 가졌던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직 힘들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의 부모 뿐 아니라 성소수자 당사자도 참여하여, 부모와의 갈등이나 커밍아웃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서울 지역 월 정기 모임: 매월 두 번째 토요일
(날짜와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 홈페이지: www.pflagkorea.org
(홈페이지에서 지난 정기모임의 대화록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 02-714-9552
- 이메일: rainbowmamapapa@gmail.com
- 페이스북: www.facebook.com/rainbowmamapapa
- 트위터: twitter.com/rainbowmamapapa

미국 성소수자 가족 모임 PFLAG 소개

(이 자료집은 PFLAG에서 발간한 가이드북 “Our Daughters & Sons”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72년 4월, 거리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던 아들이 맞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경찰에 분노한 ‘진 맨포드(Jeanne Manford)’ 여사는 신문사에 “내게는 동성애자인 아들이 있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냅니다. 기사를 본 미국의 성소수자의 부모들은 진 맨포드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레즈비언들과 게이들의 부모, 가족, 친구들(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이라는 이름으로 PFLAG라는 단체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숨어있는 부모가 되지 않겠다”는 피켓을 들고 퍼레이드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 PFLAG는 미국 내에만 500개 지부를 갖고 있으며, 중국, 일본, 베트남, 남아공,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성소수자 가족 모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PFLAG는 성소수자 가족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주요 활동 외에도 비성소수자 지지자 캠페인, 장학금 운영, 자료집 발간, 프라이드 퍼레이드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FLAG 홈페이지: www.pflag.org

한국 성소수자 부모모임의 이야기들

MTF 트랜스젠더 딸을 둔 어머니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문을 꼭 잠그고 놀았어요. 그 잠긴 문을 쉽게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아이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갔는데,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진지하게 말을 꺼내더군요. 자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럴 수도 있어”라고 했죠. 여전히 힘든 일이 많지만 아이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 방의 문이 열려 있어요.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레즈비언 딸을 둔 어머니

17살 나의 딸이 자기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네가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죠. 20살이 되고 이제 24살이 되어서도 내 딸은 남자친구 얘기는 없어요. 자기 애인이라고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렇다면 3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도, 똑같은 거라는 생각을 해요. 딸과 딸의 여친과 따뜻한 식사를 하고 행복한 대화를 할지, 존재하지 않는 딸의 남친을 기다리며 딸과 다른 식탁에 앉을지는 나의 선택이겠죠?

게이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1%의 희망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하필이면 왜 내 아들인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유전자이고 나의 환경 안에서 아들이 컸으니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부모로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사실, 편견 없는 세상이라면 게이이든 아니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성소수자인 내 아들이 아니라 차별로 가득 찬 우리 사회입니다.

게이 아들을 둔 어머니

16살 나의 아들은 너무 멋진 모범생이었어요. 항상 미소를 짓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지한 어머니는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건 줄 알고 온갖 혐오의 말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죠.

얼마 뒤, 정작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든 건 바로 저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들이 혼자 괴롭게 보냈을 세월들을 엄마로서 알아주지 못했다는 점과, 너무 무지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처를 준 미안함은 평생 마음 속에 남을 것 같아요.

이젠 말하고 싶어요. 좌절하지 않고 곳곳이 자신의 길을 가며 이겨내고 나아가고 있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다고요.

레즈비언 딸을 둔 아버지

태어난 순간 "예쁜 공주님이예요"라고 듣고 예쁜 딸로만 알고 있었던 아빠에게는 딸이 무엇을 입든지, 헤어 스타일이 어떠한지 항상 귀여운 딸로만 기억되었지요.

'레즈비언'이란 단어는 아빠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빠는 딸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아니면 '한 때의 차선 위반'이라고 여겼습니다.

평생을 이성애자로 살아온 아빠는 솔직히 말하면 딸의 세계를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본래부터 우리 딸은 아빠 엄마에게 '소중한 선물이자 기쁨'이었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당연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을 인정하고 나니 우리를 둘러싼 종교적 신념, 결혼 제도,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 동안 물상식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었구나.

이제 딸이 외롭지 않도록 아빠가 등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레즈비언 딸의 아버지입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프란시스코 교황

“만일 성소수자인 누군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무슨 권리로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동성애자들을 본다면 그 존재를 인정하겠는가, 아니면 거부하거나 비난 하겠는가? 자비를 갖고 그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잭 로저스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

“동성애자를 비이성적으로 경멸하고 혐오해 온 죄에 대해
우리는 대체 언제 사과할 것인가?
교회가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한다면
하나의 교회 가족으로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사과가 좋은 첫 걸음이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에게 온전하고 평등한 권리를 주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늘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은 용기내어 커밍아웃한 이들, 그들을 지지하고 사랑해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며 2016년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함께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핑크색 셔츠를 입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왕따 문제에 함께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효록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처님의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며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이가 차별이 되서는 안 된다”

“부처님 시대에도 성 정체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남성으로 출가한 뒤 이후에 비구니로 다시 수련하는 것이 허용됐다. 불교의 교리는 외형적, 사회적 지위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다”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

“종교를 앞세워 성소수자에 대해 노골적인 집단폭력을 행하는 기독교계의 행태가 도리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반감을 갖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이미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지탱해온 성소수자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사랑을 설파한다고 하는 종교가 앞장서서 휘두른 칼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종교적 폭력은 멈춰져야 한다.”

자캐오(민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폭력과 인권유린이 종교적 영역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과 강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지와 맹신이다. 종교의 탈을 쓴 폭력이다”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동성애는 엄연한 사실로 본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이며, 교육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지,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호모포비아와 종교적인 색깔로 이런 억지를 피우는 경우는 무지에 가깝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성소수자 인권 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
전화: 02-715-998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hingusai.net
전화: 02-745-7942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전화: 0505-896-8080

비온뒤무지개재단
www.rainbowfoundation.co.kr
전화: 02-322-9374

차세기연(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 연대)
cafe.naver.com/equalchrist

대학 성소수자 모임연대 QUV
www.facebook.com/quv.korea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http://transgender.or.kr>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www.lsgdam.org
전화: 02-703-3542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동
www.ddingdong.kr
전화: 02-924-1227

성소수자 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www.facebook.com/connectyourheart
전화: 070-4282-7943,7945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www.ahacenter.kr
전화: 02-2677-9220

성소수자 HIV/AIDS 예방센터(아이샵)
www.ishap.org
전화: 02-792-0083

성소수자 관련 상담소

유튜브 영상(youtube.com 에서 제목을 검색하세요.)

- 법륜스님 즉문즉설 "내 아들이 여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성소수자 함께 모여야 한다"
- 김두식 교수 "동성애 불편하게 받아들일 문제 아니다"
- 진선미 국회의원 "발랄하고 유쾌한 정치를 성소수자와 함께!"
- 조국 교수 (성소수자인권지킴이프로젝트- 조국교수와 함께)
-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성소수자 인권 지지 메시지 #1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
- What Would You Do?(미국 몰래카메라 방송)
- "게이 부모를 둔 아이가 놀림 받는 상황을 목격, 당신이이라면?"
- "레즈비언 커플이 가게에서 거절당했을 때의 반응"

영화

- '바비를 위한 기도(Prayers for Bobby, 2009)'
- '천하장사 마돈나(2006)'
- '캐롤(Carol, 2015)'
- '로렐(Laurel, 2015)'
- '밀크(Milk, 2008)'
- '대니쉬걸(The Danish Girl, 2016)'
-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 2005)'
- '어바웃 레이(3 Generations, 2015)'
- '환절기(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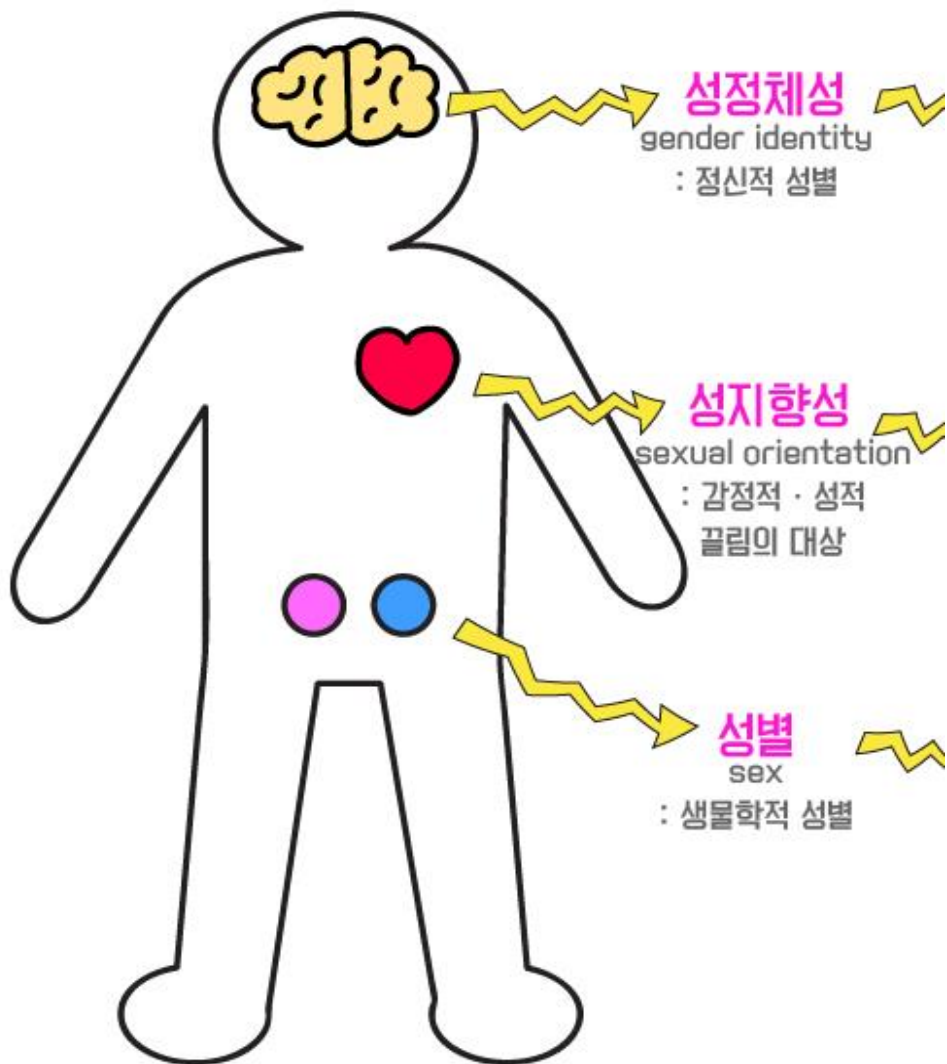
웹툰

- '어서오세요. 305호에'(네이버 웹툰)
- '모두에게 완자가'(네이버 웹툰)

책

- '예수, 성경, 동성애'
- '딸에 대하여'
-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 '커밍아웃 스토리(2018년 6월 출간 예정)'

성소수자 용어 :



기본 오브 기본

· 남성
· 여성

· 시스젠더

: 생물학적 성별과 성적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 트랜스젠더

: 생물학적 성별과 성적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참고 : 젠더퀴어, 젠더 논바이네리 등 포함.

· 이성애자 : 이성에게 감정적 · 성적 끌림을 경험

· 양성애자 : 두 가지 이상의 성별에게 감정적 · 성적 끌림을 경험

· 동성애자 : 동성에게 감정적 · 성적 끌림을 경험

· 무성애자 : 어떠한 성에게도 성적 끌림을 경험하지 않음

· 범성애자 : 모든 성별에게 감정적 · 성적 끌림을 경험

· 남성

· 여성

· 간성

: XO, XXY 등 남성과 여성에 속하지 않은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나, 외부 생식기는 남성인데 난소가 있는 등 전형적인 남성과 전형적인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별

마성의 게이 네이버 블로그
<http://queerdigger.blog.me/>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북

후원 계좌 국민은행 498102 - 01 - 347682
예금주 김용민 (성소수자 부모모임)



이메일 rainbowmamapapa@gmail.com
홈페이지 www.pflagkorea.org

© 1999, 2002, 2014 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 Inc.
Our Daughters & Sons: Questions and Answers for Parent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and Adults is copyrighted. For reprint permission, please contact the PFLAG National office, info@pflag.org, +12024678180.

ALL RIGHTS RESERVED © 1999, 2002, 2014 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 Inc.